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지은선¹ · 장미희²

¹위스콘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후연구원, ²대원대학 간호과 조교수

Aggression and Related Factor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i, Eun Sun¹ · Jang, Mi Heui²

¹Post Doctoral Fellow,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Milwaukee, Wisconsin, USA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won University College, Jecheo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internet over-use, depression-anxiety, self-esteem, all of which are known to be behavior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linked to “at-risk” children for aggression. **Methods:** Korean-Child Behavior Check List (K-CBCL), Korean-Internet Addiction Self-Test Scale, and Self-Esteem Scale by Rosenberg (1965) were used as measurement tools with a sample of 743, 5th-6th grade students from 3 elementary schools in Jecheon city. Chi-squar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3.0 ver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Results:** Aggression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net over-use and depression-anxiety, whereas self-esteem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ggress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68.4% of the variance for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accounted for by internet over-use, depression-anxiety, and self-esteem.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aggression was depression-anxiety.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arlier screening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depression-anxiety and internet over-use for elementary student will be helpful in preventing aggression.

Key words: Aggression, Internet,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의 옷을 찢고 바닷물에 친구를 빠트리거나 뒤풀이와 집단따돌림으로 오랫동안 폭력을 당하던 초등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던 사건은 학원폭력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The Korea Herald, 2010). 2010년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이 64개 초·중·고 학생 4,0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재학기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절반 이상(62.0%)이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혀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0). 이러한 보도들을 접할 때, 초등학생들이 왜 이렇게 과격해지고 있으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가해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공격성이다.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처를 가할 목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언어적 행동 및 위협적인 자기 방어 태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서”를 의미한다(Han & Kim, 2006).

주요어 : 공격성, 인터넷, 우울, 불안, 자존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ang, Mi Heui

Department of Nursing, Daewon University College, Sinwol-dong, Jecheon 390-702, Korea
Tel: 82-43-649-3283 Fax: 82-43-649-3284 E-mail: mhjang2006@hanmail.net

투고일 : 2010년 5월 4일 심사위원회일 : 2010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0월 14일

아동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학교적응, 학업성취, 교우관계 등 발달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아동이 점차 성장하게 되면 이것이 공고해짐으로써 초기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Lee, 2005). 따라서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공격성을 예측하고 이를 중재하는 것이 성장 이후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폭력성을 감소시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관련요인으로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보고들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 중 인터넷 과다사용자는 103만 5천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50.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초등학생의 94.1%가 게임과 오락의 여가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여 인터넷 사용의 주목적이 정보검색이나 커뮤니티 활동보다 게임과 오락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0). 공격적인 장면의 관찰과 모방을 통하여 공격성은 학습이 되고, 강화를 받을수록 공격행위가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한 Bandura의 사회학습 이론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들(Lee, 2004; Ko, Yen, Liu, Huang, & Yen, 2009)이 인터넷 과다사용과 아동의 공격성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폭력매체의 경험이 성인의 경우 단기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반대로 아동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어,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폭력매체로 인해 학습된 공격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다고 하였다(Bushman & Huesmann, 2006). 또한 아동의 공격성은 인터넷 과다사용과 더불어 우울,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도 나타난다고 하였으며(Ko et al., 2009), 아동이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행동이 불안정해지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는 연구결과(Dalgas-Pelish, 2006)도 보고되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공격성은 폭력적인 매체에 노출된 경험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된다기보다는 개인의 자존감 저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변인들의 효과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아동의 공격성을 다룬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공격성을 다룬 연구에 비해 아직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며, 주로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을 다루거나(Kim, 2004; Lee, 2005), 공격성향이 높은 아동에게 독서, 미술, 음악, 원예, 스포츠 등을 적용한 자기조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격성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Choi, 2007; Kim, 2004; Lee, 2004)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인터넷 과다사용과 관련된 요인으로 불안, 우울, 자존

감, 충동성 등과의 관계를 보았으며(Anderson et al., 2010; Council on Communications and Media, 2009; Ko et al., 2009; Lam, Peng, Mai, & Jing, 2009; Mehroof & Griffiths, 2009) 특히 인터넷 과다사용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들이 많았다. 인터넷을 통해 폭력적인 매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폭력에 둔감화되고 이전보다 더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Lee & Park, 2008) 인터넷 과다사용은 공격성에 대한 강력한 위험요인임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중 아동 개인의 행위와 심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터넷 사용, 우울-불안, 자존감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공격성 정도를 파악하고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 확인하여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조절하기 위한 학교기반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선행연구로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이에 따른 공격성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공격성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 정도를 비교한다.

셋째, 대상자의 공격성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파악하고,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과 관계를 확인하며, 공격성의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 J시 소재 3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765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9년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학교장, 해당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로부터 연구진행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알리고 연구에 동의하는 사전동의서를 받아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고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20-2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765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설문 22부를 제외한 743부(97.1%)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상자의 수는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에서 표본수를 구하기 위한 G power program (Erdfelder, Faul, & Buchner, 1996)에 의하면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 크기는 회귀분석의 보통 정도 수준인 .10, 독립변수(학년, 학교 성적, 경제상태,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 6개, 집단 수(공격성그룹, 정상그룹) 2개로 하여 528명이 결정되어 본 연구의 표본 수는 분석을 위해 충분하였다.

3. 연구 도구

1) 공격성

Achenbach와 Edelbrock (1983)이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척도를 Lee, Oh, Hong과 Ha (1991)가 번안하여 표준화과정을 통해 아동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든 한국형 아동·청소년용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K-CBCL)를 사용하였다. K-CBCL은 12개의 하위척도들 중에서 행동적 문제를 나타내는 공격성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런 경향이 있다' 1점, '그런 일이 자주 있다' 2점으로 0점에서 최대 40점까지 반응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공격성 원점수를 T점수로 대치하여 사용하였으며, T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공격성이 높은 아동으로 보았다(Choi, 2007). 이 도구의 신뢰도는 표준화 과정 당시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 인터넷 과다사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작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를 사용하였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of Korea, 2005). 총 40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항상 그렇다'는 4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 정도가 심한 것

으로 해석한다. 총점이 94점 이상이거나 1요인(일상생활장애)이 21점 이상, 4요인(금단)이 16점 이상, 7요인(내성)이 15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이 82-93점이거나 1요인이 18점 이상, 4요인이 14점 이상, 7요인이 13점 이상인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으로 분류하며,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을 합쳐서 인터넷 과다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다. 인터넷 과다사용 척도의 신뢰도는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of Korea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3) 우울-불안

참여대상자의 우울-불안 정도는 Achenbach와 Edelbrock (1983)이 제작한 CBCL 척도를 Lee 등(199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형 아동·청소년용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K-CBCL)를 사용하였다. K-CBCL의 12개의 하위척도들 중에서 정서적 문제를 나타내는 우울-불안 척도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런 경향이 있다' 1점, '그런 일이 자주 있다' 2점으로 0점에서 최대 24점까지 반응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표준화 과정 당시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4)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 (1965)가 개발한 Self Esteem Scale을 Choi (2007)가 번안한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긍정적 자기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기존중감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연구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3.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공격성 관련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각 변수에 따른 공격성 정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공격성 정도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

tion을 구하였고, 아동의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변수 즉,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 학년, 성적, 경제상태를 순서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검증을 위한 유의도 수준은 .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공격성 행동 비교

연구 대상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남학생 수(52.4%)는 여학생 수(47.6%)와 비슷하였고, 5학년(43.9%)과 6학년(56.1%)의 빈도가 비슷하였다. 학교성적의 경우 중간권인 학생(66.5%)이 상위권(16.4%) 혹은 하위권(17.1%)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보였다. 대상자 중 많은 학생이 형제가 있었고(89.0%), 종교가 있는 학생(64.6%)이 종교가 없는 학생에 비하여 많았다. 또한 가정 경제상태가 중위층이라고 한 학생이 전체 72.8%로 나타나 상위층 혹은 하위층에 비하여 빈도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점수는 대상자의 학년, 성적, 경제상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학년의 경우 6학년(31.4점)이 5학년(28.8점)에 비해 공격성 점수가 높았고($p<.001$),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이 중간 이상인 학생에 비하여 공격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가정의 경제상태가 하위층에 속하는 학생이 중위층 이상인 학생에 비하여 공격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6$).

2. 공격성 아동과 일반아동의 제 변수 비교

대상자 중 공격성 아동은 240명으로 전체 32.3%를 차지하였다. 인터넷 과다사용의 경우 공격성 아동(60.6점)이 일반아동(50.3점)에 비해 점수가 높아 두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1$). 특히 공격성 아동 중 인터넷 과다사용자는 14.3%로 나타나 일반아동(3.6%)에 비해 많았다($p<.001$). 우울-불안은 공격성 아동이 9.5점으로 일반아동(2.7점)에 비해 높았으며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01$). 또한 자존감은 공격성 아동이 25.4점, 일반아동이 28.2점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Table 2).

3. 공격성과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 변수의 상관관계

공격성과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에 대한 상관

Table 2. Differences in Predictor Variables by Aggression Group (N=743)

Variables	Aggression group (n=240)	Normal group (n=503)	χ^2/t	p
	n (%) / M (SD)	n (%) / M (SD)		
Internet over-use	60.57 (17.13)	50.29 (11.70)	11.02	<.001
Over user ^a	35 (14.3)	19 (3.6)	14.12	<.001
General user ^a	205 (85.7)	484 (96.4)		
Depression-anxiety	9.47 (4.25)	2.69 (2.75)	17.74	<.001
Self esteem	25.40 (4.75)	28.20 (4.58)	3.35	<.001

^an (%).

Table 1. Difference of Aggression according to Subject Characteristics

(N=743)

Variables		n (%)	M (SD)	t/F	p	Scheffe
Gender	Male	389 (52.4)	30.01 (8.05)	-1.06	.287	
	Female	354 (47.6)	30.65 (8.37)			
School year	5th	326 (43.9)	28.85 (7.47)	-4.43	<.001	
	6th	417 (56.1)	31.46 (8.57)			
School score	Upper ^a	122 (16.4)	29.13 (7.17)	12.46	<.001	a,b<c
	Middle ^b	494 (66.5)	29.78 (7.70)			
	Low ^c	127 (17.1)	33.54 (9.13)			
Sibling	Have	661 (89.0)	30.20 (8.11)	-1.01	.311	
	None	82 (11.0)	31.26 (8.95)			
Religion	Have	480 (64.6)	30.48 (8.29)	0.74	.454	
	None	263 (35.4)	30.01 (8.05)			
Economic status	Upper ^a	177 (23.8)	29.00 (7.62)	5.07	.006	a<b<c
	Middle ^b	541 (72.8)	30.58 (8.17)			
	Low ^c	25 (3.4)	33.96 (9.22)			

Table 3. Cor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Variables (N=743)

	Aggression	Internet addiction	Depression-anxiety	Self esteem
Aggression	1			
Internet over-use	.42 (<.001)	1		
Depression-anxiety	.73 (<.001)	.35 (<.001)	1	
Self esteem	-.28 (<.001)	-.29 (<.001)	-.42 (<.001)	1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공격성은 인터넷 과다 사용($r=.42, p<.001$), 우울-불안($r=.73, p<.001$)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r=-.28, p<.001$).

4. 공격성의 예측 요인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과 일반적 특성 중 공격성 점수에 차이를 나타낸 학년, 성적, 경제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대상 독립변수의 상관 계수는 .8 미만으로($r=.28-.73$)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인 간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75-.82로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 범위는 1.20-1.33으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값을 구한 결과 1.7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 회귀 분석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88.75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회귀식의 R^2 값은 .68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측정변인들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은 68.4%였다. 분석결과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울-불안($\beta=.78, p<.001$), 인터넷 과다사용($\beta=.22, p<.001$), 자존감($\beta=-.11, p=.047$)이었고, 학년, 학교성적, 경제상태는 모형에서 제외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학년, 성적, 경제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저학년생보다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고(Lee, 2005), 아동이 높은 성적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우울-불안을 해소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언행을 행사함으로써 타인에게 인정

Table 4. Factors Influence Aggression

(N=743)

Variables	B	SE	β	t	p	F(p)	Adj. R ²
Constant	-4.15	4.30		-0.96	.337	88.75	0.684
Depression-anxiety	1.01	0.07	0.78	14.37	<.001	(<.001)	
Internet over-use	0.14	0.03	0.22	4.27	<.001		
Self esteem	-0.25	0.12	-0.11	-2.01	.047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으로 동료나 후배에게 자신의 좌절된 욕구를 공격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격성이 높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Kim, 2004; Lee & Park, 2008). 또한 저소득층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품행문제, 우울, 낮은 자존감(McLeod & Shanahan, 1996), 폭력성(Choi, 2007; Lee, 2007)을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경제적 형편에 따라 공격성이 차이가 없다고 한 결과도 발표되어(Lee, 2005) 공격성의 위험을 저소득층의 아동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계층을 고려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초등학교 743명 중 공격성 아동은 32.3% (240명)에 해당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 측정 도구와 달라 제한점이 있으나,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에서 초등학교 7,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전체의 25.8%가 불안-우울, 공포, 강박 같은 정서문제와 폭력,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문제를 보인다고 하여 초등학교 4명 중 1명이 문제행동이 있음을 보고한 것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공격성 아동과 일반아동의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은 모든 변수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터넷 과다사용 점수는 공격성 아동이 60.6점, 일반아동이 50.3점으로 두 군 모두 일반사용자에 해당하였다. 이는 K-척도를 이용하여 초등학교의 인터넷 과다사용 정도를 조사한 Lee (2004)의 연구에서 과다사용집단과 비과다사용집단의 점수가 각각 54.7점, 31.6점인 것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를 고려해볼 때 아동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공격성 아동이 인터넷 과다사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폭력물 모방이 아동의 공격성을 일으키며 인터넷 과다사용은 공격성에 대한 강력한 위험요인(Lee & Park, 2008)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우울-불안은 공격성 아동이 9.5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교의 우울을 조사한 Lee와 Park (2008)의 연구에서 일반아동이 11.0점인 것보다 낮았다. 선행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지역권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복잡하고 부모의 교육열이 높아서 이로 인해 아동의 우울-불안 정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존감은 공격성 아동이 25.4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공격적인 청소년의 경우 27.7점(Ko et al., 2009), 공격성 초등학생이 25.1점(Choi, 2007)인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 아동이 현실에서 불만스러운 상황이나 견디기 힘든 갈등을 경험할 때 긍정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고, 또래로부터 배척당하여 우울-불안이 심해지며, 자신을 억압하여 자존감도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초등학생의 공격성은 학교적응과 교우관계는 물론 올바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문제의 발단이 되기 때문에 간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공격성 정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인터넷 과다사용 경향이 높고, 우울-불안의 정도가 높으며, 자존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았고,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자존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68.4%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불안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련성을 조사한 Ko 등(2009)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을 제시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 아동의 공격성에도 두 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록 사용한 도구가 연구자마다 달라서 제한점은 있지만, 우울한 청소년 중 30%가 행동장애를 진단받았고, 공격적인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더 우울하며, 우울-불안은 자존감을 매개로 하는 경우에 더 높은 수준의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Ko et al., 2009; Lam, Peng, Mai, & Jing, 2009; Lee, 2007). 또한 아동기는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성 및 성격발달이 이루어지며, 인지정서의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또래에게 우호적이지 않으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을 개방하지 않고 동시에 친구들에게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아동일수록 우울하기 쉽다는 선행연구의 결과(Lee & Park, 2008)는 본 연구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해 다른 일을 포기하거나 소홀하게 되고,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이는 아동의 우울을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우울의 표현 양식이며, 우울-불안은 공격의 방향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돌리는 것 즉, 공격성의 내재화된 표

현(Kovacs et al., 2006)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공격성 아동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먼저 아동의 우울-불안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중재하여 내재된 공격성이 감소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 조절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며, 아동의 정서 조절 실패의 선행요인으로서 공격성을 지적하는 연구(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아동이 타인에게 공감하고 타인의 입장을 존중함으로써 또래, 부모, 선생님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형성하고 이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우울과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조기에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터넷 과다사용은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해 초등학생은 일상생활에서의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증가시키며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Ander-son et al., 2010; Lee, 2004)를 지지하였다. 특히 아동의 경우 폭력적인 매체가 공격적인 행동, 공격적인 사고, 분노감정 및 흥분단계를 모두 증가시켜서, 성인과는 다르게 공격성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선행연구는 아동의 폭력매체 경험이 성장 이후의 공격성과 연계될 수 있음을 부각시켜준다(Bushman & Huesmann, 2006).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나 주변인의 도움이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학년에 맞게 인터넷 이용시간을 부모나 주변인이 적절히 통제하는 것으로 인터넷 과다사용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자존감 향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이 높은 아동은 타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주위환경에 소속감을 갖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일은 자신의 것보다 훌륭하다고 여겨 타인과의 관계에서 방어적, 왜곡성을 가지게 되므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Bowie, 2007; Choi, 2007; Dalgas-Pelish, 2006)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존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의 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문제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요구를 해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아동의 높은 자존감은 공격적인 문제행동에 있어 보호요인이 되고 본 연구에서 인터넷 과다사용이나 우울-불안을 통제하고도 공격성의 원인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공격성 아동의 건강한 자존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존감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환경적인 요인들을 찾아 정서·심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초등학교의 공격성의 위험요인이 아동의 심리요인인 우울-불안, 자존감과 행위요인인 인터넷 과다사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한 점이다. 특히 본 연구는 공격성이 폭력적인 매체에 노출된 경험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 된다고보다는 우울-불안이 공격성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밝혔는데 의의가 있으며, 우울-불안이 높은 아동일수록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초등학교생이 가지는 공격성의 정확한 진단 및 관리를 위해서는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습장애, 과잉행동 같은 다른 정서 및 행동문제와의 감별진단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몇 가지 연구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만 실시된 횡단적 조사이므로 아동의 공격성 여부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 즉, 학교적응, 교우관계 및 가족관계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인과관계에 의한 상관성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외생변수 통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충북 J시의 3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으로 제한함으로써 외생변수를 최소화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을 최대화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공격성과 우울-불안은 K-CBCL의 일부 문항을 이용하여 평가되었는데 이 도구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임상적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공격성 혹은 우울-불안 진단 도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관련 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우울-불안, 자존감 변인의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초등학교생 위한 학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에 우울-불안과 자존감의 심리적인 변인에 근거하여 개발되어지길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파악하고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공격성의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2009년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충북 J시 소재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743명이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 과다사용 경향이 많을수록, 우울-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초등학교생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우울-불안은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격성 아동의 우울-불안 정도를 사정하여 이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지지하고, 인터넷 과다사용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도록 격려할 때 초등학교생의 공격성을 낮추어 학원폭력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생의 공격성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있어 아동의 우울-불안과 자존감의 심리적인 접근이 중요함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과다사용 및 인터넷 게임중독 치료의 실무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M: University of Vermont.
- Anderson, C. A., Shibuya, A., Ihori, N., Swing, E. L., Bushman, B. J., Sakamoto, A., et al. (2010). Violent video game effects on aggression,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eastern and western countrie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6, 151-173.
- Bowie, B. H. (2007).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the developmental process. *Journal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0, 107-115.
- Bushman, B. J., & Huesmann, L. R. (2006).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violent media on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ult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0, 348-352.
- Choi, A. N. (2007).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the aggression and self-esteem of children for various-income grou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Council on Communications and Media. (2009). Policy statement-media violence. *Pediatrics*, 124, 1495-1503.
- Dalgas-Pelish, P. (2006). Effects of a self-esteem intervention program on school-age children. *Pediatric Nursing*, 32, 341-348.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36-157.
- Erdfelder, E., Faul, F., & Buchner, A. (1996). GPOWER: A general power analysis program.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28, 1-11.
- Han, S. S., & Kim, K. M. (2006). Influencing factors on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37-44.
- Kim, H. S. (2004). Development of a sublimation program for Korean adolescents'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 81-92.
- Ko, C. H., Yen, J. Y., Liu, S. C., Huang, C. F., & Yen, C. F. (2009). The associations between aggressive behaviors and internet addiction and online activities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4, 598-605.
- Kovacs, M., Sherrill, J., George, C. J., Pollock, M., Tumuluru, R. V., & Ho, V. (2006). Contextual emotion-regulation therapy for childhood depression: Description and pilot testing of a new interven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5, 892-903.
- Lam, L. T., Peng, Z. W., Mai, J. C., & Jing, J. (2009).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Cyber Psychology & Behavior*, 12, 551-555.
- Lee, E. O. (2005). *A study of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ggression and it's related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Lee, E. S. (2007).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576-585.
- Lee, H., Oh, K. J., Hong, K. E., & Ha, E. H. (1991). Clinical validity study of Korean CBCL through item analysis. *Korea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 138-149.
- Lee, J. S.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use of internet and aggressiveness an impulsiveness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Lee, K. E., & Park, K. (2008). The influence between internet addiction,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and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 *Psychotherapy*, 8, 31-48.
- McLeod, J. D., & Shanahan, M. J. (1996). Trajectories of poverty and children's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 207-220.
- Mehroof, M., & Griffiths, M. D. (2009). Online gaming addiction: The role of sensation seeking, self-control, neuroticism, aggression, state anxiety, and trait-anxiety. *Cyberpsychology & Behavior*, 10. [e-pub ahead of print]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Screening test for school mental health in 2006*. Retrieved March 31, 2010, from <http://www.mw.go.kr/front/index.jsp>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of Korea. (2005). *A study of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 Retrieved March 31, 2010, from <http://www.nia.or.kr/Index.aspx?PortalID=ko>
- Rosenberg, M. (1965). *Conceiving the self*. Malabar, FL: Krieger.
-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0). *Report of school violence trend and an urgent countermeasure in 2010*. Retrieved March 31, 2010, from http://www.jikim.net/bbs/index.php?action=bbs_view&backto=bbs_list&pageno=1&bbs_code=blue_board_bodo&bbs_bid=74&menu=1&cs_m=4
- The Korea Herald. (2010). *Naked graduation ceremony*. Retrieved March 29, 2010, from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217001316>